

문화

피아니스트 김정원
27일 모나무르심포니와 협연

피아니스트 조성진
30일 차이코프스키 곡 들려줘



김정원



조성진



김수연



권혁주



김다솔

권혁주·김다솔
5월 2일 환상의 하모니

김수연 5월 17일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김태영 6월 광주시향과 호흡

독일에서 태어나 뮌헨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25)도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거장 마리스 안손스의 오디션을 받아 화제가 된 김수연은 레이블 도이체 그라모폰(DG)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연 역시 오는 5월 17일 크리스티안 루트비히가 지휘하는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춘다. 연주 레퍼토리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협주곡'이다.

광주시향이 초청한 또 한명의 젊은 거장은 피아니스트 김태영이다. 광주시향과 6월 연주회(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프랑스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들려준다. 포르투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김태영은 이후 통티보 콩쿠르, 쾰른리자베스 콩쿠르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오며 지난 2011 에피탈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티켓 가격 3만3000원. 문의 062-360-8432.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젊은 연주자들의 신선한 클래식 바람이 분다

요즘 문화계 흐름 중 하나는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약진이다. 쾰른 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등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에서 남보를 전하며 입지를 굳힌 젊은 거장들은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클래식 팬들의 호응도 절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임동혁·임동민·송영훈씨 등 30대 연주자를 뿐 아니라 10대, 20대 연주자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좀처럼 클래식 공연을 만나기 어려운 광주에서도 지난해부터 젊은 연주자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어 반갑다. 개인 리사이틀 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해졌다. 임동혁이 처음으로 독주회를 가졌고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도 광주 무대에 섰다. 3월부터 6월까지 풍성한 무대가 대기중이다.

젊은 연주자 그룹의 만능격인 피아니스트 김정원(37·경희대 음대

교수)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황성규(전남대) 교수가 지휘봉을 잡는 모나무르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김정원은 이번 무대에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들려준다.

김씨는 정통 클래식 연주회와 함께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타이틀로 '김정원과 친구들'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이색적인 앙상블 공연을 열고 영화 '호모비츠를 위하여'에도 출연하는 등 클래식 대중화에도 앞장

서고 있다.

차이코프스키 곡으로만 구성된 이번 연주회 프로그램은 '서곡 1812년', 교향적 환상곡 '프란체스카 다 라미니'다. 티켓 가격 3만 원~1만원. 문의 1588-7890.

오는 30일(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는 또 다른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을 만난다. 무대에 서는 피아니스트는 조성진(18).

크리스티안 루트비히가 지휘하는 광주시향과 협연하는 조성진은

2008년 열린 국제소프라노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젊은 피아니스트로 지난해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성진은 정명훈이 지휘봉을 잡은 서울시향, 베를린방송교향악단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현재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의 반주자로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중이다. '러시아의 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광주시향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도 함께 연주

한다. 문의 062-524-5086.

5월 2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한 무대에 선다.

금호아트홀 '스페셜리스트 시리즈'로 마련한 이번 무대에서는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스트라빈스키의 '디베르티멘토'를 들려준다.

19세의 나이로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권혁주(27)는

러시아 파가니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올해 안양대 관현악과 교수로 임용돼 연주와 함께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에서 첫 연주를 갖는 김다솔(23)은 16세 때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로 유학,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다. 쾰른 리자베스 콩쿠르,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오며 지난 2011 에피탈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티켓 가격 3만3000원. 문의 062-360-8432.

지역 연극계 정체된 모습 여전... 아쉬움 커

가사문화권 숨결이 생생히 내달 2일까지 황영식 초대전

■광주연극제 결산

지난 18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제26회 광주연극제에서 극단 까치놀의 '꿈꾸는 해바라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꿈꾸는 해바라기'는 오는 6월5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제30회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머무는 쪽방촌을 배경으로 신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모습을 그린 '꿈꾸는 해바라기'는 연기상(윤미란)과 연출상(심성일)도 함께 받았다. 극단 '청춘'의 '오리 장대 위로 날다'는 희곡상(원광연)과 연기상(오설균)을 수상했다.

'꿈꾸는 해바라기' 최우수상, 6월 전국연극제 출전

캐릭터·배경음악, 극 몰입 방해... 연기는 인상적

아쉽게도 이번 광주연극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지역 연극계의 정체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듯해 답답했다.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다소 뻔한 스토리와 연출은 관객을 몰입시키는 힘이 전혀 없었다. 특히 수상작 '꿈꾸는 해바라기'가 전국연극제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수습이 필요할 듯하다.

초반에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이야기를 풀어가던 '꿈꾸는 해바라기'는 각각의 캐릭터가 주제를 향

해 수렴되지 못하고,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줬다.

특히 마지막 부분, 주인공 정인분 할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인지하는 부분의 연출은 마치 잘 돌아가던 레코드판이 튀듯 생뿔뿔하며 작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배경음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수습이 필요할 듯하다.

캐발 논리와 공동체 가치 파괴에

따른 딜레마를 그린 '오리 장대 위로 날다' 역시 여는 작품이나 등장하는 뻔한 캐릭터와 갈등 해소 방법 등이 식상함을 줬다.

특히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난감했다. 또 출연배우들이 많은 탓도 있지만 일부 배우들의 연기는 극의 몰입도를 떨어트렸다.

이날 심사위원 5명을 대표해 심사평을 발표한 함수남 심사위원장 역시 "창작 희곡으로 참여한 '꿈꾸는 해바라기'와 '오리 장대 위로 날다' 두편 모두 참신한 맛이 없고 구성력도 문제가 있었다"며 "전국연극제에 참여하기 전에 상당한 부분 손을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큰 맘먹고 떠나는 여행에서만 역사와 전통, 선인들의 숨결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심 미술관만 찾아가도 가사문화권 옛 선인들의 삶과 채취,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한국화가 황영식씨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선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가사문화권을 찾아'라는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 가사문학을 일태한 가사문화권을 담은 작품 13점이 선보인다.

담양으로 대표되는 호남정자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는 독수정(獨守亭)을 비롯, 한국의 대표적 정원 소재원(瀟瀟園), 송강 정철이 성산별곡을 읊었던 식영정(息影亭)과 옛 정취를 그



'식영정이 보이는 곳'

대로 담고 있는 환벽당(環碧堂), 풍암정(楓巖亭), 면양정까지 가사문화권의 정자와 원림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7년간 수십 차례의 현장 답사와 스케치, 자료조사를 거쳐 세필로 한점 한점 정교하게 묘사한 작품에는 작가의 섬세한 손길이 배어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